

• 타운뉴스 칼럼

Better Call Saul

인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지난 토요일 오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작은 딸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던 중 딸이 "아빠 요즘 Netflix에서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나"고 묻더니 혹시 'Better Call Saul' 을 봤냐고 물었다. 전에 아빠가 즐겨 봤던 'Breaking Bad' 에 변호사로 출연했던 Bob Odenkirk가 나오는 작품으로 아빠가 좋아할 거라고 했다.

식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뒤에 혼자 남아 Better Call Saul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4일이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마지막 회를 보았다. 드라마는 총 3편의 시리즈로 구성돼 있으며, 각 시리즈마다 10회씩 총 30회 분량이었다. 매회 짧은 것은 42분, 긴 것은 56분 길이였으니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전체를 보기 위해 26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하루 4-5 시간 동안 Better Call Saul을 본 셈이다.

드라마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더더구나 드라마의 작품성이나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는 더욱 할 얘기가 없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형제에 관련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전체적으로 두 줄기의 이야기를 큰 흐름으로 한다. 각각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가끔 양쪽이 만나기도 한다. 하나는 변호사 형제의 이야기로, 다른 하나는 마약 카르텔에 관한 이야기로 엮였다.

드라마는 형 '척' 과 아우 '지미' 의 많은 나이 차이와 성격이나 성장 과정이 전혀 다른 점을 부각시킨다. '척' 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변호사 그룹의 변호사이고 '지미' 어릴 때부터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트러블 메이커였다.

척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반듯하게 해서 변호사가 된 뒤에도 나름대로 명성을 얻고 실력이 있는 변호사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미는 한때 사기도 치고, 크고 작은 문제에 관련되어 형 속을 어지간히 썩이는 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온라인으로 법률 공부를 해서 그도 역시 변호사가 됐다. 그리하여 큰 기대를 갖고 척이 소속된 법률 그룹에 입사하려고 하나 척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척은 동생을 우려와 불신의 시각으로 지켜본다. 지미가 저질렀던 갖가지 사건 사고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그에 대한 질투도 크게 작용한다. 동

생은 언변이 좋고 뛰어난 친화력을 통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쉽게 만들지만, 자신은 권위와 명예 등을 중히 여기며 지도자로 자처하며 살아가기에 지미를 늘 못마땅해 한다.

지미에 대한 이런 사고의 근본 원인은 어머니가 임종시에 보여준 모습에서 기인한다. 당시 척과 지미는 병실에서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미는 배가 고프다며 먹을 것을 사러 나간다. 지미가 병실에서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숨을 거두려고 하며 지미의 이름만 되풀이 해 부른다. '어머니 저는 지미가 아니고 척' 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머니는 지미만을 찾는다. 늘 말썽이나 부리고 속이나 썩히던 자식을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어머니는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임종 직전, 곁에 있는 자신은 안중에도 없고 동생만을 찾는 어머니를 보면서 척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의 심정은 묘한 표정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의사와의 대화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머니 운명 직전에 의사가 '척' 에게 물었다. 혹시 연락할 사람이 있냐고. 척은 대답했다. 없다고. 그럼 혹시 이 병원 안에 다른 식구가 있느냐고 의사가 다시 묻는다. 만일 병원 안에 있다면 구내방송을 통해 빨리 오게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척은 단호하게 말한다. 아무도 없다고.

얼마 후 음식을 사들고 병실로 돌아온 지미가 척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전에 아무 말씀도 없었냐고. 척은 대답했다. "No!"

1999년 11월,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4남매가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로 와서 어머니 유품 등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막내 동생이 어머니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열심히 읽다가 내게 건넸다. 어머니가 일기 형식으로 당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글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큰 아들인 나에게 대한 걱정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시종일관 큰 아들 이름이 계속 나왔다. 미국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는 내용들이었다. 동생은 글을 읽으며 어떤 심정이었을까?

부모들은 말한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손가락을 깨물었을 때 더 아픈 손가락은 분명히 있다. 그 손가락이 평소 아팠던 손가락이었다면 더 아플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손주들 재물이 즐거운 이 나이에 깨닫는다.

chahn@townnewsusa.com

타운뉴스

제 1220호 목차

타운뉴스 칼럼	15
커뮤니티 소식	16,17,19,21
나는야 1.5세 아줌마	18
전문인 칼럼	22,23,30,53
미국 법률	25
여행	27
지금 서울에서는	29
세상에 이런 일이	32
함께 생각	35
업소탐방	36
IT/ 과학	39
부동산, 경제	41
한인업소 안내지도	46,48,62,64,66,67
그림여행	47
영화	49
갈갈	50
연예	55,57
Domestic/ 주간운세	56
중고차, 안내광고	58,59
요리	61
여성	63

가주장익시

매장: 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대표: 정영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TEL (562)622-9393

타운뉴스® 배포지역

- 로스엔젤레스, 세리토스, 아테시아
 - 가디나, 토렌스
 - 하시엔다, 로렌하이츠, 다이아몬드 바 등 LA 동부
 - 오렌지카운티 전지역
- 광고문의 714.530.1367
info@townnewsusa.com

www.townnewsusa.com

회사,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크레딧!!

개인 크레딧 & 비즈니스 크레딧 상향조정, 용자 저희가 도와 드립니다



- | | |
|--|--|
| 개인 크레딧 | 크레딧교정, 크레딧카드 및 탕감 및 이지율 조정 상담 |
| 크레딧 빌드업 | 주택 렌트비 크레딧 리포트에 반영 및 다양한 솔루션 제공으로 신용 점수 급상승 가능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용자 상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대의 크레딧라인 조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용불량자 신용거래 즉시가능 | |
| 비즈니스 크레딧 | 비즈니스 크레딧 생성 및 빌드업에 관한 토탈 컨설팅 |
| 비즈니스 용자 | 비즈니스 및 개인 신용 상태에 따른 맞춤형 용자 프로그램 |

유컨설팅은 공인 세무, 법무 법인이며, 6개의 지사 중 OC와 LA 오피스가 한인 담당입니다

예약상담 **714-989-1231**
14730 Beach Blvd. #233, Buena Park, CA 90638

예약필수 **213-973-1183**
3600 Wilshire Blvd. LA, CA 90010

